



프로야구 순위 “버티기냐, 반등이냐”

올시즌도 양극화 뚜렷... 이달 순위싸움 본격 시즌 초반 SK·한화 10연패는 지난해와 달라 삼성·kt 약진하면 순위판도 요동칠 수 있어

팀만 바뀌었을 뿐 프로야구 순위 구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모양새다. 시즌 초반의 양극화가 끝까지 이어질지, 하위권 팀의 반등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팀당 25경기를 치른 지난해엔 5개 팀이 승률 5할을 넘겨 상위권을 형성했다. 5개 팀은 하위권으로 밀려내려졌다. 두산 베어스와 SK 와이번스가 선두 다툼을 했고, 키움 히어로즈·NC 다이노스·LG 트윈스가 중위권을 형성했다.

kt wiz와 KIA 타이거즈는 꼴찌 싸움 중이었다. 이후 변동이 있었지만, 초반에 정해진 5개 팀이 작년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올해는 고공비행 중인 선두 NC를 필두로 LG, 두산, 키움, KIA가 승률 5할 이상을 올려 상위권에 포진했다. 나머지 5개 팀의 승률은 5할을 밑돈다. 시즌 초반 SK, 한화 이글스 두 팀이나 10연패를 당했다는 점은 지난해와 다르다. 그 탓에 선두와 최하

위의 경기 차는 지난해 8경기에서 올해 12.5경기로 더욱더 벌어졌다. 팀 전력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고려하면 지금의 순위 양극화가 지난해처럼 끝까지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성 라이온즈와 kt가 약진하면 순위 판도는 요동칠 수 있다는 의견도 힘을 얻는다. 들쭉날쭉한 경기를 펼치던 삼성은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를 거둬 초반에 잃었던 승수를 급세 만회했다. 시즌 12승 14패를 거둬 공동 4위 키움과 KIA를 2경기 차로 쫓는 6위로 도약했다. 원태인과 허윤동 신예급 투수들이 선발 투수진에서 힘을 냈고, 외국인 타자 타일러 살라디노는 3월 LG와의 경기까지 5경기 연속 멀티 히트와 4경기 연속 멀티 타점을

올려 공격을 이끌었다. 리그 정상급 불펜이라는 평가를 들은 삼성은 4경기만 더 치르면 더욱 강력해진다. ‘끝판대장’ 오승환(38)이 도박 관련 징계를 끝내고 합류한다. 이 없이 잇몸으로 버티는 공동 7위 kt도 눈여겨볼 만하다. kt는 중심 타자 유한준과 강백호 없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둘이 빠진 상황에서도 kt는 5승 6패로 밀리지 않았다. 벨 로하스 주니어를 중심으로 배정대, 조용호 등이 타선 공백을 때워 팀 득점력을 유지한 덕분이었다. 탐색전을 끝낸 10개 구단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하는 이달부터 순위 레이스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4일 제주 서귀포 롯데 스카이하일 제주CC에서 열린 '제10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1라운드 2번 홀에서 지은희가 드라이버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언니 지은희 13년 만에 국내 우승할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1R 9언더파 63타로 공동선두

은희의 샷 감각은 최고였다. 그린 미스가 두 번 뿐이었던 지은희는 처음 그린을 놓친 1번홀(파4)에서 버거샷파세이브로 위기를 넘긴 뒤 3개홀 연속 버디로 상승세를 탔다. 이후 나온 버디 가운데 3개는 팀인 버디일 만큼 샷이 정확했다. 두 번째 그린을 놓친 14번홀(파3)에서는 15m 집샷을 버디로 연결했다. 최근 스윙을 고치고 있다는 지은희는 “코로나19 때문에 투어 휴업이 길어진 덕분에 스윙을 완벽하게 다듬을 수 있는 여유를 누렸다”면서 “전에는 페이드 구질이라서 왼쪽 핀일 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드로 구질도 칠 수 있어 아무래도 코스 공략이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은희는 우승 전망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워낙 한국 선수들 실력이 뛰어나고, 나 혼자 9언더파 친 것도 아니고, 7언더파친 선수들도 많다”는 지은희는 “내 스윙에만 집중하고, 남은 사흘 동안 선두권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소박한 희망을 밝혔다. 연합뉴스



“황소 드리블이면 거뜰” 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1부리그 레드불 잘츠부르크와 SK 라피드 빈의 경기에서 황희찬(오른쪽)이 라피드 빈의 데얀 루빅과 공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황소’ 황희찬 83분 출전... 팀 2-0 승리

공격포인트는 올리지 못해 황희찬(24)이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재개 첫 경기에서 83분을 소화하며 잘츠부르크의 완승에 힘을 보탤다. 황희찬은 4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20 분데스리가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라피드 빈에 2-0으로 이겼다. 황희찬은 선발 출전해 후반 38분까지 83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다. 황희찬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후반 21분 옐로카드를 한 장 받을 정도로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쳐 팀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날 경기는 지난 3월 8일 코로나19로 리그가 중단된 뒤 잘츠부르크가 치른 첫 경기였다. 황희찬은 같은달 6일 LSKA 린츠와의 오스트리아축구협회(OFB) 컵 준결승(1-0 잘츠부르크 승)에서 입은 허벅지 근육 파열 부상을 완전히 치유된 뒤 가진 첫 경기이기도 했다. 챔피언십 라운드 첫 경기를 가뿐한 승리로 장식한 잘츠부르크는 승점 27점을 쌓아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KBO 심판배정 내규 마련 아버지가 아들 판정 못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선수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심판위원의 주심 배정을 금지하는 내규를 마련했다. 류대환 류대환 사무총장은 3일 통화에서 “최근 심판위원회와 논의해 관련 내규를 정했다”며 “강광희 심판위원은 아들 강진성이 속한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주심을 보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NC 외야수 강진성은 선수 출신인 강광희 심판위원의 아들이다. 2012년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NC에 입단한 강진성은 올 시즌 팀의 주축 선수로 성장했다. 출전 경기 수가 많아져 아버지 강광희 심판위원이 판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동안 오심 논란은 없었지만,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심판이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스트라이크-볼 판정이 그렇다. 이에 KBO는 내부 논의 끝에 관련 내규를 마련했다. 류대환 사무총장은 “선수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심판은 선수가 속한 팀의 경기에서 주심을 볼 수 없도록 했다”며 “다만 비디오 판독 등을 통해 객관적인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선심은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포스트시즌에선 선심 배치도 금지된다. 만약 NC가 올 시즌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면 강광희 심판은 NC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외국인 드래프트 라자레바 1순위로 기업은행

러시아 국가대표 라이트 안나 라자레바(23)가 2020-2021 한국배구연맹(KOVO)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1순위로 IBK기업은행에 뽑혔다. 기업은행은 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얻었고, 김우재 감독은 주저하지 않고 라자레바를 호명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미국 국가대표 출신

라이트 켈시 페인을 뽑았고, 현대건설은 벨기에 출신 레프트 헬렌 루소를 지명했다. KGC인삼공사는 발렌티나 디우프, GS칼텍스는 메레타 레즈와 드래프트가 열리기 전에 재계약했다. 이날 래프트는 지난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구슬을 부여받아 6위 한국도로공사 구슬 30개, 5위 IBK기업은행 26개, 4위 KGC인삼공사 22개, 3위 흥국생명 18개, 2위 GS칼텍스 14개, 1위 현대건설 10개의 확률로 6개 구단의 지명권 순위를 정했다. 지명순위는 기업은행, 인삼공사, 도로공사, GS칼텍스, 현대건설, 흥국생명 순이었다. 연합뉴스

불에 타지않는

준불연 스티로폼 쉘보드

제주총판 그랜드 OPEN

시험성적서 보유

ISO 9001, ISO 14001 특허증 보유

흑연 EPS보드 연소시험

연소 전

발화 3초후

발화 5초후

연소 후

쉘보드(SHIELDBOARD)와 S보드 연소시험

연소 전

발화 1분후
표면 탄산화
수축과 변형이 없음

5분후 표면탄산화층
화염을 저지,
수축과 변형 없음

연소 후

쉘보드의 특징

준불연 제품, 열경화성제품, 열전도율 0.034, 적은흡수율, 우수한 단열성, 뛰어난 가성비, 효율적인 보온성능, 환경친화성

기존 보온비드법 시공과 동일 600*1200으로 시공 간편

쉘보드 제주총판 우영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63
전화 739-8118 팩스 739-9228, 010-6337-3047 메일주소 : wy9724@naver.com